



# 정교회주보

##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클리멘트 로마 주교

루가 제 9주일

필레몬 70인 사도, 세실리아 순교자  
제 7조, 조과복음 2

(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7조 부활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사도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 에페소 2:14~22 / 봉독서 318
- 복음경 : 루가 12:16~21 / 129, B 7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 성 클리멘트 로마 주교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의 교회의 거룩한 교부들의 저서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11월 24일 축일로 기념하는 로마의 주교 성 클리멘트(+101)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이 서신은 거룩함과 겸손함을 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와 함께 이 서신을 읽어본다면 이 서신이 얼마나 가르침을 주고 있고, 독자들의 영혼에 얼마나 건설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은 교회의 일치, 그리스도인

들 간의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원한으로 인한 파괴적 결과들을 예로 들면서 그럼에도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커다란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미움과 시기로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당신은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길 원합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는 곳이 땅 속에 어두운 동굴이라고 상상해봅시다. 태양 빛이라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태양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외부인이 캄캄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태양에 대해, 밝은 빛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존재와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태양의 빛을 본 적이 없어서 태양이 있다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 우리를 내버려주세요. 여기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외부인이 우리들에게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니, 그를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외부인의 도움으로 그를 따라 미로와 같은 동굴로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동굴 밖에서 사람들은 삶에서 처음으로 아름답고, 밝고, 경이로운 태양의 빛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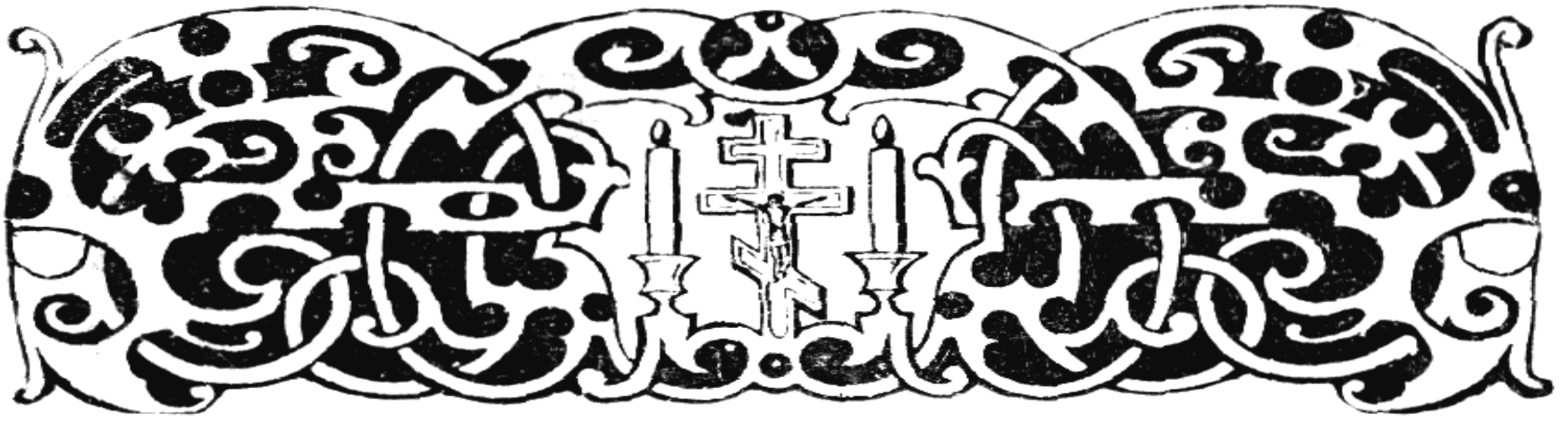
“아! 빛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는 어두운 동굴에서 살면서 이러한 것을 잃고 있었

다니!”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상상의 이야기 속으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정의의 태양이십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오류의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지극한 사랑으로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동굴에서 나오게 해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주시고, 하느님 왕국으로 인도하셨고, ‘주님 교회의 빛나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성가 작사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밝아오는 우리 구세주가 찾아오셨도다. 동정녀로부터 주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어둠과 그늘에서 진리를 찾았도다.”(성탄 엑사쁘스펠라리온)라고 찬송하면서 빛을 찾은 모든 이들의 감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죄의 어두운 동굴에 남아있었고,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위대한 방문자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 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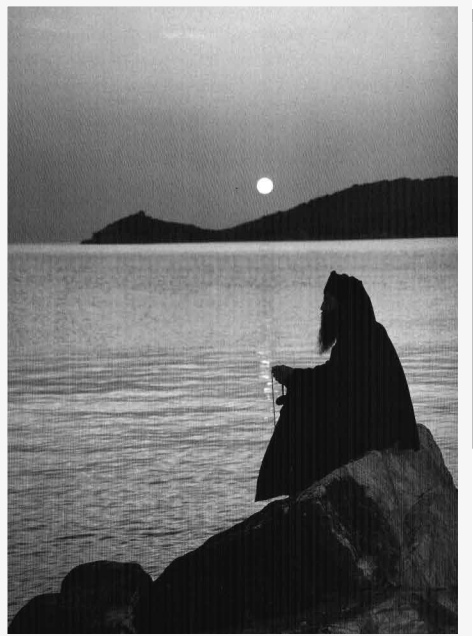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4)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내 기도는 얼마나 폭이 넓어야 할까요? 등등. 이런 질문은 열렬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는 기도는 어제 한 기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흔히 거룩한 사람은 기도의 마침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도하는 생활은 끝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매일매일의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심각하게 약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허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런 허약함이 더 강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언제든지 기도하려고만 한다면 실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바 마카리오스(4세기, 이집트)는 말합니다:

“어리석게 오래도록 황설수설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팔을 들고는, ‘주님,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그리고 모든 걸 가장 잘 아시오니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고,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하는 기도, 침묵의 기도(아마도 가장 위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느님 앞에 앉아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읍시다. 자비가 한량없으신 그분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하며, 가없는 존재로서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와 구원과 도움을 간청합시다.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대교구

#### ➡ 성 안드레아 축일 수도원 철야예배

올해는 코로나19로 숙박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축일을 맞이하여 해왔던 철야예배 없이 축일 성찬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 ➡ 온라인 성서공부 시간 안내

앞으로는 온라인 성서공부는 매주 월요일 오후부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12월 5(토)~6(일), 2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하지 못한 수련회 대신에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서울로 와서 함께 예배와, 영적 공부와 놀이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

올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수련회를 대신해서 지난 11월14~15일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4일 토요일 오전에 여느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아침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함께 첫 번째 주제 “주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

을 가졌고, 이어서 실내놀이를 통해 친교를 다지고, 점심 식사 후에는 야외 활동으로 방어진 체육공원에서 크리스토퍼 신부와 요한 보제와 함께 줄다리기, 풍선 이어달리기, 축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성 넥타리오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 “다락방 방문”을 함께 읽고 모본이 되는 성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에 간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대만과를 드린 후에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15일 주일에는 주일 조과와 성찬예배에 참여하였고, 예배 후에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의 중심 주제인 “주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잃지 않고 생활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틀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하느님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여성회,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 ➡ 슬라브어권 신자들 방문

지난 11월 15일 주일에 로만 신부와 함께 40여명의 슬라브어권 신자들이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이루어진 성찬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고, 소티리오스 대주교로부터 영적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외부에서 낙엽을 청소하는 등 겨울을 준비하는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간예식

11월 25일(수)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메르쿠리오 대순교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